

스탈린이 경공업을 경시했다는 비변증법적 헛소리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스탈린이 경공업과 인민들 생활을 신경쓰지 않고 중공업에만 투자했다는 주장은 비변증법적 사고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현재 우리가 먹는 라면은 라면 공장에서 생산된다. 즉 라면을 대량생산하기 위해선 공장이 필요하다. 그 공장에서 라면을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하다. 그 기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중공업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사서 먹는 것들과 사용하는 생활품들은 결과적으로 중공업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중공업에서 경공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생산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공업이 되어 경공업이 되는거다.

다시 이야기를 스탈린 시대로 돌려보자. 초기 소련은 제국주의 전쟁과 내전의 여파로 공업이 약했다.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을 압박했다.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중공업 위주의 성장이 필수불가결했으며, 따라서 탱크와 전투기 그리고 잠수함 같은 군수물자 생산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스탈린의 중공업 성장이 민중들을 단순히 소품으로 보았는가? 그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증진됐고, 사적소유 철폐라는 역사적이고 진보적인 업적 속에서 그것이 달성됐다. 결국 이 시기 소련의 노동자 정책은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에도 큰 영향을 줬고.

스탈린 경제성장을 박정희랑 단순비교 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된다.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철폐되어 삼성이나 현대 LG 그외의 자본가 기업들이 없는 사회, 노동자 권리가 부르주아지보다 더 강한 사회가 어떻게 미국의 달러빨로 성장 동력을 뺏은 나라랑 같다는건지.ㅋㅋㅋㅋㅋㅋㅋㅋ



